

‘가을’ 포기는 없다...KIA 투트랙 전략 통할까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특별수비훈련을 진행하며 미래를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KIA 타이거즈 제공〉



SSG전 네일-올러 ‘외국인 원투펀치’ 총력전 이범호 감독 직접 젊은 선수들 특별수비훈련 성적·미래 두 토끼 잡기로 분위기 반전 노려

KIA 타이거즈가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 탈출에 나선다. ‘디펜딩 챔피언’에서 하위권으로 추락한 KIA는 고민 많은 9월을 맞았다. KIA는 지난 8월 팀 월간 평균자책점이 5.17로 치솟으면서 10승 14패로 적자를 기록했다. 36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8월 홈런 1위 팀은 됐지만 마운드 고민 속 21개의 실책이 쏟아지면서 엇박자 행보가 이어졌다. 아직 ‘가을 잔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순위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내년 시즌과 미래를 생각하면 신예 선수들의 경험과 실력도 동시에 쌓아야 하는 바쁜 9월이다. 성적과 미래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이범호 감독은 홈 3연전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3·4일 SSG와의 대결을 위해 ‘외국인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한 마운드 총력전을 준비했다. 원래 로테이션으로는 3일 이의리가 마운드에 오른 뒤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가 순서대로 선발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KIA는 지난 8월 29일 KT전을 소화했던 네일을 앞당겨 3일 선발로 내세웠다. 올러 역시 4일 휴식 뒤 4일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등판이 미뤄진 이의리는 5일 KT와의 경기 선발로 준비한다. 최악의 8월을 보낸 KIA는 9월 첫 경기였던 2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도 3-21 패배를 기록했다. 선발로 나선 김도현이 5회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4.1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 불펜진도 난타를 당하면서 KIA는 무려 21점을 내주는 대패를 기록했다. 계속된 불펜 난조 속 양현종, 김도현, 이의리 등 토종 선발진까지 연달아 흔들리면서 KIA는 마운드 이종교에 빠져들었다. 물러설 곳 없는 KIA는 가장 믿을 만한 외국인 투수들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기싸움에 나선 이범호 감독은 3일 ‘특수 훈련’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챔피언스필드에서는 특별 타격 훈련이 아니라 특별 수비 훈련이 준비됐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훈련에는 정현창, 윤도현, 박민, 김규성, 오선우 등이 참가했다. 내야수 출신의 이범호 감독이 직접 나서 KIA의 미래를 이끌고 가야 할 선수들 지도에 나섰다. KIA는 2일 경기까지 105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마운드 난조 속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힘든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 실책으로 잡히지는 않는 수비 실수들도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을 꺾고 있다. 2일 경기에서도 KIA는 아쉬운 수비 뒤 대량 실점을 했다. 부상 복귀전에서 홈런을 기록했던 윤도현은 타석에서의 활약과 다른 수비로 아쉬움을 남겼다. 3루수로 나선 윤도현은 포스 아웃 상황에서 한 박자 늦은 대처를 하면서 상대의 보내기 번트로 주자들을 모두 살려주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에 대해 “판단을 잘못된 것이다. 본인이 잡아야 하는 타구인지, 포수가 잡아야 하는 타구인지 미스를 한 것 같다. (베이스에) 포스 아웃인데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베이스가 멀어서 태그를 하러다가 보니까 늦어졌다”며 “그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훈련 시키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이 안타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구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야구를 알고 땅고를 받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교육도 하면서 반복 훈련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넓은 시야와 상황에 맞는 플레이가 부족했던 만큼 이 부분에 집중해 팀의 미래를 키우는 게 이범호 감독의 숙제가 된 것이다. 이범호 감독이 이례적인 수비 훈련을 진행한 이유다. 투트랙 전략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이범호 감독의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저스 김혜성, 복귀전서 득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멀티 플레이어 김혜성이 부상 복귀전에서 대주자로 나와 홈을 밟았다. 김혜성은 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방문 경기 6-9로 뒤진 9회초 공격에서 1루 주자 미겔 로하스의 대주자로 출전했다. 후속 타자 오타니 쇼헤이는 중견수 키를 넘기는 대형 2루타를 날렸고, 김혜성은 손살같이 2루, 3루를 지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을 찍었다. 김혜성이 MLB 경기에 출전한 건 7월 29일 신시내티 레즈 전 이후 36일 만이다. 그는 왼쪽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뒤 한 달 정도 마이너리그 트리플 A팀인 오클라호마시티 코맥스에서 재활 경기를 뛰었고, 지난 2일 확대 엔트리에 맞춰 풀업을 통보받았다. /연합뉴스

이날 선수단에 합류한 김혜성은 경기 전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향공편 연착으로 환승편을 놓쳐서 14-15시간을 공황에서 보냈다”며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다저스는 추가 득점하지 못하고 7-9로 패했다. 오타니는 시즌 46호 홈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오타니는 다저스로 이적한 지난해부터 100개 홈런을 터뜨렸다. MLB닷컴은 “새 구단 입단 후 두 시즌 동안 100개 홈런을 친 사례는 베이브 루스(1920-1921·뉴욕 양키스), 로저 매리스(1960-1961·양키스), 알렉스 로드리게스(2001-2002·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어 역대 네 번째”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박세리, LPGA 한화 인터내셔널 크라운 엠베서더 위촉

한국 여자 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주관으로 열리는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달러) 공식 엠베서더로 위촉됐다. 대회 주최 측은 3일 “박세리가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회를 홍보하고 개막 세리머니 등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세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는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전 성격의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2014년 시작해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엔 한국, 미국, 일본, 태국, 스웨덴, 호주, 중국, 월드컵 총 8개 팀 32명의 선수가 출전할



계획이다. 한국 대표팀은 김효주, 유해란, 고진영, 최혜진 이 나선다. 나흘간 열리는 대회는 1-3라운드 포볼 매치 플레이, 최종 라운드는 싱글 매치 플레이와 포섬 매치 플레이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한국 바둑 농심배 6연패 시동 이지현 9단, 중국에 불계승



한국 바둑이 농심배 6연패를 향해 상쾌한 출발을 했다. 한국은 3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제 2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최강전 1국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이지현 9단이 중국 선수의 강호 리진청 9단에 22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백을 잡은 이지현은 중반 확실한 주도권을 잡은 뒤 하반 후진마저 파괴하며 항복을 받아냈다. 한국이 농심신라면배 개막전에서 승리한 것은 23회 대회에서 원성진 9단이 일본 시바노 도라마루 9단에 승리한 이후 4년 만이다. 농심배 국내 선발전에서 ‘13전 14기’ 끝에 처음 태극마크를 단 이지현은 이번 대회 첫 대국에 출전했지만 긴장한 기색도 없이 일방적인 완승을 거뒀다. 이지현은 대국 후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길 수 있어서 흥분하고 기쁘다”며 “하지만 내일 바로 대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녁) 식사 후 상대에 대해 연구할 것이고, 기술적인 면보다 멘탈 부분을 강화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지현은 5일 오후 열리는 2국에서 일본의 첫 주자 후쿠오카 고타로 7단과 맞붙는다.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3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1국에서는 일본의 나카노 히로나리 9단이 중국의 차오다위안 9단에게 불계승했다. 4일 오전 열리는 2국에서는 나카노 9단이 한국의 첫 주자 김영환 9단과 맞붙는다. 농심백산수배에 처음 출전한 김영환은 나카노와 처음 맞붙는다. 한·중·일 3개국에서 5명씩 출전해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국을 가리는 농심신라면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다. 시니어 프로기사들이 참가하는 농심백산수배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연합뉴스

KIA 투수 이도현 ‘8월 퓨처스 루키’ 상 수상

KIA 타이거즈 3년 차 투수 이도현(사진)이 8월 퓨처스 루키상 수상자가 됐다. 이도현은 8월 한 달간 퓨처스리그 4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총 19이닝(남부 4위)을 소화하면서 2.84(남부 5위)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또 19개의 탈삼진(남부 2위)도 뽑아내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탈삼진 능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휘문고 출신의 이도현은 2023신인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62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이도현에게는 기념 트로피와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메디컬 코스메틱 제품도 수여된다. 타자 수상자로는 두산 출신의 상무 윤준호가 선정됐다. 8월 15경기에 나선 윤준호는 타율 0.413(남부 3



위), 출루율 0.439(남부 5위), 장타율 0.651(남부 2위)를 기록했다. 또 안타 26개(남부 1위), 19타점(남부 1위), 홈런 3개(남부 3위) 등을 장식하면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수상에 성공했다. 한편 퓨처스리그 타이틀스폰서인 메디힐의 후원을 통해 2024년 제정된 퓨처스 루키상은 입단 1-3년 차 선수 중 퓨처스리그에서 규정 이닝 또는 규정 타석을 충족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월간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준으로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선정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SSG, 이승용 감독 재신임...최대 3년 연장 계약

총연봉 12억 등 총액 18억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이승용(54·사진 오른쪽) 감독과 시즌 중에 ‘최대 3년 연장 계약’을 했다. SSG는 3일 광주 KIA 타이거즈와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이승용 감독과 2026년부터 최대 3년, 총액 18억원(계약금 3억원, 총연봉 12억원, 옵션 3억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승용 감독은 2023년 11월 SSG와 2년 계약금 3억원, 총연봉 6억원을 합해 총 9억원에 계약하며 지휘봉을 잡았다. 이 감독은 첫 시즌이었던 2024년에는 정규시즌을 5위(승률 0.507·72승 2무 70패)로 마쳤지만, 공동 5위 KT와의 5위 결정전에서 패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올해에는 2월까지 승률 0.517(62승 4무 58패)로 3위를 달렸다. 6위 KT가 1.5게임, 7위 NC 다이노스가 2.5게임 차로 추격 중이어서 아직 포스트시즌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SSG는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는 이 감독에게 재계약을 선별하며, 힘을 실어줬다.



2일 현재 이승용 감독의 승률은 0.511(134승 6무 128패)이다. SSG는 올 시즌 주축 선수 최정, 기예르모 에레디아, 이지영, 한유섭의 부상이 이어진 상황에서도 신예 조형우, 안상현, 류효승을 기용하고,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으로 이어지는 막강 불펜진을 구성해 포스트시즌 진출 경쟁을 벌인 이승용 감독의 팀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SSG는 2028년부터 청라돔을 홈구장으로 쓴다. 계약 기간을 채우면, 이승용 감독은 ‘청라돔 시대를 여는 사령관’으로 기록된다. /연합뉴스